

“동백꽃처럼 뒷모습이 아름다운 삶 살아야”

제주 올레길 원조 카멜리아 힐

양언보 대표

5월 어느 날 이른 아침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 위치한 카멜리아 힐(Camellia Hill·동백 언덕)을 찾았다. 카멜리아 힐은 가수 소년시대 윤야가 청순함을 발산하며 화장품 광고를 찍은 장소로 더 유명해진 곳이다. 카멜리아 힐은 5만여 평에 달하는 부지에 전 세계 560여 종 60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식재돼 있다. 카멜리아 힐은 양언보 대표의 원력과 신심으로 준비된 26년이 걸렸다. 1984년부터 시작된 동백나무 심기는 2008년까지 계속됐다. 양언보 대표의 정성과 열정이 담긴 카멜리아 힐은 2008년 11월 22일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양 대표는 “국내에 동백꽃 전문가가 없어 직접 일본·중국·유럽 등 세계 80여 나라를 돌아다니며 묘목을 구입하고 공부했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 올레길(제1~18길)이 유명세를 올리며 많은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고 있다. 올레는 ‘올란 길’이라고도 하며 끝목길을 의미하는 제주도 사투리

이다. 하지만 올레의 명칭이 양언보 대표의 카멜리아 힐에서 유래했음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양언보 대표가 카멜리아 힐을 조성하던 당시 사단법인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이 방문했다. 서 이사장은 ‘올레’라는 이름을 쓰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주도 토박이였던 양언보 대표는 이를 흔쾌히 허락했다.

양 대표가 동백을 좋아하게 된 것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 졸업이다. 군을 제대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가난이 사방을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혼자 우연히 계곡에 갔습니다. 털썩 앉아서 하염없이 계곡만 보고 있는데 절벽을 뚫고 나온 동백나무와 그 나무에서 피어난 동백꽃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없어 정말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동백을 보고 사생 결단을 했습니다.”

양 대표는 대학을 마치고 20여 년간 감귤, 고구마 전

분공장, 건설·유통·무역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다. 때로는 시련이 있었지만 매일 새벽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양 대표는 어려울 때 힘을 준 부처님 은혜에 보답코자 현재 제주 북성사 신도회장도 맡고 있다.

양언보 대표는 1984년 당시 큰 수익을 내던 감귤나무를 베어내고 동백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동백에 흠뻑 빠진 뒤였지요. 바위틈에도 피어나는 생명력, 눈 속에서 피어나고 눈 위에 떨어진 다음에도 아름다움을 갖는 꽃은 나에게 시련을 이겨내도록 만들고 삶의 진리를 전해 주었으니까요.”

내친 김에 그동안 사업해 번 돈을 몽땅 ‘동백 언덕 만들기’에 쏟아 부었다.

카멜리아 힐을 조성한 양언보 대표는 아내와 함께 동백차(茶)도 2종을 개발했다. 식용유로 개발한 동백기름은 특허도 받았다. 최근에는 카멜리아 힐의 성공사례를 배우러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이다.

“동백꽃은 ‘겨울 꽃의 여왕’이지만 겨울에만 피는 꽃은 아닙니다. 꽃피는 시기에 따라 추백(秋柏), 동백(冬柏), 춘백(春柏)으로 나뉘집니다. 동백은 겨울에도 푸르름이 있고 눈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동백꽃은 ‘중도의 꽃’입니다. 활짝 피었다가 미련 없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의 ‘동백 예찬’은 계속됐다.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도 일주일 정도 싱싱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동백은 떨어진 모습을 사진 찍는 유일한 꽃이에요. 동백은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불자들이 동백꽃처럼 뒷 모습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카멜리아 힐을 둘러보는 관람객들은 동백꽃 하나하나를 신기해했다. 양언보 대표는 카멜리아 힐의 곳곳에 숨은 보물을 소개하며 자연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며 극찬했다.

“식물이야말로 이타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이 있어서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줍니다.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상생의 가르침이 위대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물이 부처님 가르침을 증명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양 대표는 동백과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도 늘어놓았다.

“동백은 자신이 언제 가야하는 줄을 알고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답죠. 인생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은 하루를 살더라도 보람을 느끼는 삶입니다. 비가 오면 나무가 잘 크듯, 시련을 받아들이고 견디면 사람은 성장합니다.”

양언보 대표는 불자들에게도 한마디 남겼다.

“제가 생각하는 불심은 ‘남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무엇을 하면서 상대에게 이로운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불자라면 조금 천천히 생각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부자연스러움, 억지스러움은 빼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글=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양언보 대표가 카멜리아 힐에 핀 묵단(모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양 대표는 “묵단은 부귀를 상징하는 꽃으로 조선시대 왕비들의 병풍에 많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 카멜리아 힐



카멜리아 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동백 품종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카멜리아는 동양에서 건너간 동백꽃을 18세기 스웨덴 식물학자 칼 폰 린네가 불린 이름이다. 동백의 꽃말은 ‘신중·허세부리지 않음’으로 알려져 있다.

카멜리아 힐(Camellia Hill)은 현대인의 급박한 삶에 여유와 자연에서 휴식하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조성한 공원이다. 동백 언덕을 뜻하는 카멜리아 힐은 전 세계 동백 560종이 식재돼 있다. 카멜리아 힐의 동백 올레 길에는 사상가·유럽동백·아태동백·야생화·홍가시나무·후박나무 올레가 펼쳐져 있다. 또 지하 300m 암반수를 맞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켈러리·카페가 있어 동백을 주제로 전시된 다양한 작품과 동백 상품을 만날 수 있다.

동백꽃은 9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3월에 만개한다. 늦게 피는 꽃은 5월까지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향기 나는 동백이 나지 않지만 카멜리아 힐에는 향기 나는 동백이 6종 있다. 동백의 향기를 맡고 싶다면 11월에 카멜리아 힐에 가야 한다.

카멜리아 힐·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271번지 (064)792-0088



대한불교 법성종



총 정 장 허 덕암
총 무 원 장 능 허 혜운

교 육 원 장 설 허 만원
포 교 원 장 상 허 재령

총무원부원장 도 원
중앙총회부원장 설 봉 성인

포 교 부 장 보 현 조보현
재 무 부 장 옥 천 류옥순
총 무 부 장 백 봉 성관

원 로 원 장 춘 광 법 주
중앙총회의장 일 허 혜승

문 화 원 장 락 허 혜운
규 정 원 장 조 허 혜운

교 육 원 부원장 법 정
포 교 원 부원장 보 안 현철

교 육 부 장 일 초
문 화 부 장 문 순재



총 정 장 허 덕암



총 무 원 장 능 허 혜운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